

우리 농업과 농촌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아니면 생생한 농업으로 부활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있다. 대체가 돼 버린 FTA와 농축산물 개방 하러오는 농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지만 한편에서 우리 농가와 식품산업 등 고부가가치 생생한 산업으로 탈바꿈해 국기를 먹여살릴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을 생생한 현장취재를 통해 진단하고 나아가 생명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심는 순서〉

- 〈1부〉 농업, 포기할 수 없다
- 〈2부〉 유기·생태농이 대안이다
- 〈3부〉 농업은 생명산업
- 〈4부〉 수출에 길이 있다
- 〈5부〉 '귀농' 꿈을 이룬 사람들
- 〈6부〉 선진지에서 배운다



소금 폭락에 항의하는 전국한우협회 순천지회 소속 농민들이 지난 5일 호남고속도로 순천IC 진입로에서 상경시위를 저지하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올해 발표되는 한·미 FTA는 축산업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구촌 식량전쟁 시대, 농업은 핵심산업이다

최대위협 FTA 시대

올해 농업계의 최대 이슈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FTA는 관세율을 점차 낮춰 국가간 무역장벽없이 통상이 이뤄지도록하는 완전 자율경쟁 체제를 말하는 것으로 경쟁력 없는 분야의 도태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농업의 경우 다 산업을 비해 경쟁력이 약해 FTA시대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후 현재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U 등 7건이 발효중이다. 무역규모로 볼때 이들 나라와의 FTA 파급력은 농업을 크게 위협할 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비준을 마친 한·미 FTA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여기에 정부가 한·중 FTA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기로 하면서 올해가 우리나라 농업이 통째로 붕괴되는 원년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양대 경제대국이자 농업대국인 미국,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농촌은 기반부터 붕괴되고 특히 농도 전담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효된 한·EU FTA와 올해 발효되는 한·미 FTA로 인한 국내 농업분야 피해액은 연평균 814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한·미 FTA 피해액이 6698억원으로 82.2%를 차지했고 한·EU FTA 피해가 1448억원을 차지했다.

전남으로 폭을 좁혀보면 두 곳과의 FTA
로 농업 생산액은 해마다 1158억원이 줄어

FTA 피해 年 1158억...농도 전남 '휘청'

한-중 체결때 파괴력 막강...15년간 7조 피해

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미 FTA 피해액이 81%인 939억원에 달하고 나머지 219억원은 한·EU FTA에 따른 피해다.

분야별로는 축산물 피해가 전체의 78%인 901억원으로 가장 크고 과수 13%(146억원), 채소·특작 7%(86억원), 곡물 2%(25억원) 순이었다.

15년간 피해가 누적되면 전반 농업의 피해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의 3.3%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중 FTA 파괴력은 두 곳을 합친 것보다 크다. 전담배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15년 동안 국내 농산물 생산 감소액이 4조9632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국 생산 감소액(26조1222억원)의 19%가 전남에서 발생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전남 농업이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미 FTA 피해의 2배, 한·EU FTA 피해에 비해서는 9.6배나 큰 규모다.

중국은 우리의 지리적으로 가깝고 재배되는 품종도 비슷하다. 산동반도 하나만해도 우리나라 전체에 필요한 양의 쌀이 생산되고 그곳에서 나는 배의 당도는 나주산보다 높다. 여기에 토지비용과 임금의 우리나라 10분의 1 수준이다 보니 농축산물 생산비는 우리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양국 주요 농축산물 30개 품목 가격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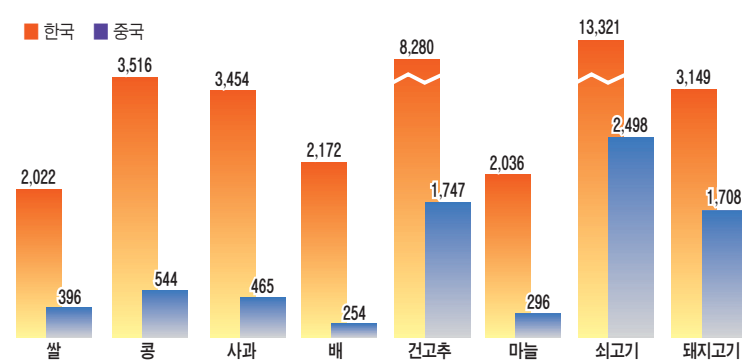
했더니 돼지고기, 닭고기를 제외한 28개 품목에서 우리 가격이 중국보다 2배 이상 높았고 23개 품목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세계 3대 경제체블록인 미·중·EU와의 FTA
전 전담에서만 15만톤에 626632억원이란
천문급의 피해가 현실화한다는 계산이다.
이렇다보니 농민들이 받는 심리적 부담감은
공황상태에 가깝다. 순창에서는 밭 1억5000
만원을 감당 못한 농민이 소 10여 마리를 굶
겨 죽인 일까지 벌어졌다. 육우(젖소) 수소
송이치 한마리가 삼겹살 1인분과 비슷한 1만
원대보다도 물론 먹여 키운 값이다.

직불금 사용을 놓고 자치단체와 농민단체 간 이견도 노출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13일 전남도에 버경영안정대책비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를 했다. 전남도가 올해부터 버경영안정대책비 550억원 가운데 절반을 경정액 강화사업에 사용하려 하자 현행대로 전액 농민들에게 직접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이번 사태는 FTA로 발생하는 농가 피해보전 자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됐다”면서 “당장 잘못인지 아니면 경쟁력 강화에 쓸 것인지가 관건이지만 농민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필기기자 bungy@kwangju.co.kr



■ FTA 대책 무엇이 있나

농가 피해 보전자금 54조 지원...배분 '시각차'

농민들 “수혜산업서 자원 확보 농업 재투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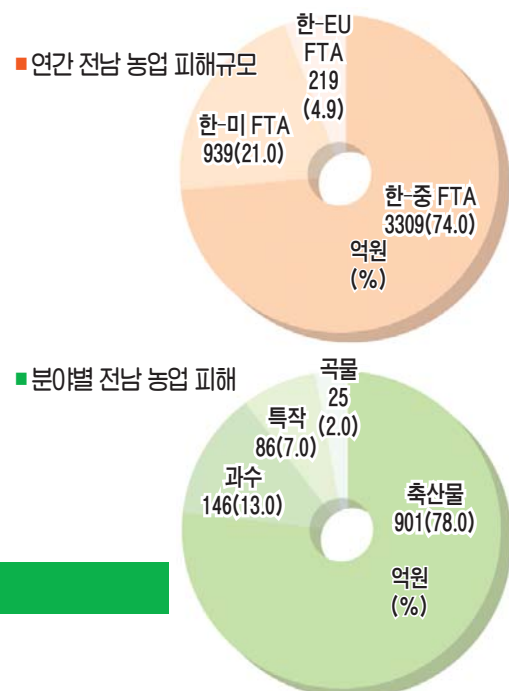
FTA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이 가장 포괄적이다. 주요 내용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현행 85%에서 90%로 완화한 것이다.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 대비 90% 미만(현행 85%)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발농업직불제도 처음으로 도입해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밀·콩·보리·옥수수·호밀·조 등 19개 품목이다.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주는 수산직불제도 시

행한다. 올해부터 우선 육지에서 50km 떨어진 4415여가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벌인다. 또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67.7% 증가시킨 4109억원으로 확대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금 과포를 계기로 수습사업 무관료 대상을 현행 11개 품목에서 쿠리·유채·밀조 등 11개 품목을 추가해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가 보완대책을 위해 기존에 수립된 보완대책(2017년까지 지원규모 22조 1000억원)에 2조원을 추가로 증액해 총 24조 1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한-미, 한-EU FTA 합산(연평균)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시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욕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 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 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

www.oknwood.com

- ▶ 편백나무 인테리어 시공 전시장 2층
- ▶ 편백나무 전시장 4층
- ▶ 친환경제품
 - 한국 편백, 일본 히노끼, 중국 향목 루바 일체
 - 황토보드, 게르마늄 분말, 운기석 토말
 - 친환경 흡음재, 친환경 단열재, 불연칼라 내장 마감재, 목도보드
- ▶ 각종 내장재
 - 소송각재, 미송각재, 합판, 스테인리스 내장재 일체
 - 방부목, 특수목, 남미산천연데크재, 독일산 아이돌(오일스테인)

- ▶ 협력사
 - 우단페이퍼몰딩, 필름합판, 문짝, 물딩, 태원목재 호남총판
 - kcc 강화마루, 한술강화마루, 동화마루 대리점, (주)장가방
 - 라파즈, KCC 석고보드 총판
 - 레포피아 합성목재 호남총판
- ▶ 목조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 ▶ 히트상품 : 편백입체블럭, 편백도드마감재

11월 24일~27일까지 열렸던 KBC건축박람회
 광남종합목재건설상사(주)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백나무가구 전문업체
광남종합목재건설상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 062) 652-2935 ~ 2223 fax. 062) 651-5141

편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편백주문제작
 전국 전남북·시·군 대리점 모집 판매 및 창업문의 010-3609-4321